

## Evaluation

### 오찬영님의 Photo Organizer

#### 1. 장점

##### A. Functional UI

- 태그를 직접 쓰는 번거로움을 AI 를 이용하여 해소하였다.
- AI 가 직접 바로 태그를 추가하지 않고, 사용자가 AI 가 추천하는 태그를 클릭해서 추가할 수 있으므로 하여, AI 가 낸 오류를 수정하는 번거로움 없다.
- 태그로 모든 사진이 자동 분류되어,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따로 폴더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다.
- 사용자가 직접 태그를 추가하고, 수정할 수 있다.

##### B. Nonfunctional UI

- 대중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과 유사한 UI 를 적용하여 사용성이 높고,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다.
- 왼쪽 화살표를 통해 뒤로가기, 오른쪽 화살표를 통해 자세히 보기라는 일관적인 버튼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어 이해가 쉽다.
- 핸드폰의 파일탐색기와 유사한 UI 를 사용하고 있어 사용법을 배우기 쉽다.
- 한화면에 적당한 개수의 사진이 노출된다.

#### 2. 단점

##### A. Functional UI

- 태그가 자동으로 사진에 따라 분류되긴 하지만, 이 사진을 모아 보기 위해서는 대분류 -> 소분류 를 선택하는 형태로 두번의 클릭을 해야 한다. (예를 들어 트와이스의 다현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클릭한 후 트와이스의 다현을 골라야 한다.)
- 태그에 따라 사진이 자동으로 분류되는데, 이 경우는 대분류가 매우 많아져, 사용자가 사진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.
- 모든 태그가 분류로 분리되기 때문, 소분류가 많아져 사용자가 사진을 찾기 어렵고, 사진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것이다.
- 태그를 달때, 대분류와 소분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.

##### B. Nonfunctional UI

- 검색 기능이 있다고 하였으나, UI 상으로 어떻게 검색을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. (web framing 상에서 찾아보기와 검색이 혼용되어져 사용되고 있다)
- 탐색, 태그, 검색 등 카테고리 분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다.

- 홈화면이 탐색화면으로, 다운받은 위치들이 담긴 폴더들이다. 파일 탐색기와 같은 첫 화면이 사진을 정리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절하지 않다. 첫 화면은 사진이 정리된 폴더 혹은 사진과 같이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.